

고흥유자·생강 유럽 신규시장 수출길 '활짝' 꾸준히 수출

유럽의 식음료 및 소스시장(B2B) 개척...세번째 상차 "고흥농산물 판로개척에 총력 기울여 경기불황 대응"

고흥군은 지난 15일 두원농협 유자가공사업소에서 '고흥 유자·생강 체코, 이탈리아 식재료 수출 3차 상차 행사'를 가졌다. 이번 상차는 지난 10월 2차래(13톤) 상차에 이은 세 번째 상차로 고흥 유자·생강 10톤(1,440박스)이 유럽 식재료 시장 수출길에 올랐으며, 수확기 가뭄으로 인한 유자 생산량 감소(△20% 내외)와 국내의 경기 불황 속 판매 부진, 재고량 증가로 인한 수매량 감소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와 가공업체에 대비 같은 소식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기존 수출은 완제품인 유

자차로만 수출되었으나, 지난 9월 고흥 농산물 수출 개척단 유럽 방문 이후, 고흥유자와 생강이 유럽 현지인의 식문화와 기호도를 반영해 식재료시장에 소스로 진출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며, 향후 수출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영민 군수는 "대형 카페체인점 등 국내외 B2B 식재료시장 공략으로 고흥유자는 물론 고흥농산물 판로개척에 총력을 기울여 경기불황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동주기자



순천시, 지방자치 경쟁력 '3년 연속 전남 최고 지자체 선정' 인증서 받아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위한 도시공간 혁신



순천시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2022 한국 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평가'에서 3년 연속 전남 종합경쟁력 최고 지자체로 선정되어 14일 인증서를 받았다.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기현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과 권영국 본부장이 참석해 노관규 순천시시장에게 종합경쟁력 전남 최고 지자체 선정 인증서를 전달했다. 199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한국지방자치

경쟁력지수'는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통계 연보와 정부부처 및 기관의 공식 통계자료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지표다. 전국 지자체의 경쟁력을 측정해 상대적으로 비교·분석한 것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차지하는 지자체의 위상, 인구, 지리적 위치와 특성 등이 경쟁력의 일부로 반영됐다. 순천시는 전남 22개 시군의 평균인 425.43을 훨씬 상회한 553.07로 1위를 차지했으며,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간 혁신이 주요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이 3년 연속 전남 종합경쟁력 1위에 오른 것은 역동적인 정원 박람회 개최 준비 등 시민과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친 결과"라면서 "복합 소품물 유치를 통한 소비인구 유입,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 조성, 미래기술 기반의 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남해안 관광벨트 허브 도약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포럼 성공적 개최

광양시 수소산업 유치·육성에 관한 관심과 이해의 폭 넓히는 계기 마련

광양시는 지난 16일 호텔락에서 기업체·학계·공공기관 등 수소 관련 전문가들과 수소 산업 활성화에 관심 있는 시민·기업체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했다. 다양한 분야의 수소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된 포럼은 광양시에서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120여 개의

좌석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참석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개회사에서 "광양시는 포스코와 광양항 등이 있어 국내 수소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광양시에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등과 관련된 수소 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정민철 순천대 교수의 사회

로 '광양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이란 주제로 분야별 수소 전문가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정부의 수소산업 정책방향에 관한 기초연설(수소융합얼라이언스 김성복 단장)을 시작으로 ▲현대차 수소 활용 전략(현대자동차 임승철 실장) ▲포스코그룹 수소사업전략(포스코홀딩스 손병수 상무) ▲수소산업 육성 현황과 전략(울산대 김준범 교수) ▲수소 안전 및 수소소(한국가스안전공사 이정운 부장)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사업(광양시 신오희 에너지관리팀장)이 수소 사업 추진현황·계획 등을 발표했으며, 참석자들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광양=김현근기자

보성판소리성지 '토요상설 락' 공연... 아듀!

보성군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판소리성지에서 진행했던 '토요상설 락(樂)' 공연이 12월 10일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서편제의 본향이자인 보성군은 보성소리의 아름다움과 전통문화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매주 토요일 판소리 성지에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문화 공연을 펼쳐왔다. 보성군은 전통소리꾼, 판소리명창, 판소리 이수자 등이 출연하는 전통판소리 공연은 물론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창곡, 퓨전극, 전통

무용, 악기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전통문화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 유명 관광지 투어버스인 '남도한바퀴'와 연계 운영해 보성을 찾은 약 2,000여명의 관광객들에게 우리소리의 매력을 알렸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판소리성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택에서 실시간으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를 실시해 온라인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보성소리를 즐겼다. 보성=김덕순기자

여수시, 겨울철 '다중밀집시설 합동 안전점검' 실시

오는 28일까지... "안전도시 여수 만드는데 힘쓸 것"

여수시는 실내 화재사고 발생이 많은 겨울철을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12월 28일까지 '다중밀집시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한파와 건조한 날씨로 실내 난방기기 등 화기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박현식 부시장이 직접 여수 시립요양병원과 예울마루를 방문해 전기·소방·가스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박 부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화재 시 현장조치 대응 매뉴얼, 소방시설 관리 실태, 화재 경보설비 작동 여부, 비상연락체계 등을 직접 꼼꼼히 점검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요소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보수·보강이 필

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응급조치 후 신속히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박현식 부시장은 "최근 잇단 안전사고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연말연시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중밀집시설을 집중 점검하여, 안전도시 여수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